

22개 모든 시·군에 학교지원센터 설치

전남도교육청, 3국 3담당관 14과 61팀 체제 조직개편 학생들 미래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실과 수업혁신 나서

전남도교육청이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사반 짜기로 '전남교육 혁신'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신학기에 맞춰 본청은 3국 3담당관 14과 61팀 체제로 바뀌고, 직속기관도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에 대비해 14기관 10분원이던 것을 12기관 10분원으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의 교육자치 확대 기조와 초·중등 권한 이양에 대비해 정책역량을 높이고, 학교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개편에 따라 본청은 기존 교육국, 행정국에 정책국이 신설돼 3국 체제로 전면 재편됐다.

신설된 정책국은 교육정책 기획과 조정, 혁신교육, 노사정책, 안전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산하에 정책기획과, 혁신교육과, 안전복지과, 노사정책과를 뒀다.

신설과인 안전복지과는 안전기획과 교육, 재난 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노사정책과는 교육공무직 업무지원과 교원·공무원단체와 교섭, 고용지원 등 업무를 맡는다.

지역 22개 모든 시·군 교육청에는 학교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지난해 10개 시범 운영에 이어 이번에 모든 시·군으로 확대 된다.

학교지원센터는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운영, 기간제 교사 채용,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공무직 인건비 지급 등 일선 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를 수행한다.

교사들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줄여주고, 학교가 학생교육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기



전남도교육청이 3월 2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전남교육 혁신'을 위한 도약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 청사 전경.

능을 통합해 유치동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개편했다. 학생중심 교육정책을 표방하며 기능 중심 조직에서 대상 중심 조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과 인권, 학생생활 교육 등을 담당하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를 신설하고, 시설공사 감리의 책무 강화를 위해 직속기관이던 교육시설감리단을 부교육감 직속 감리담당관으로 분청

에 편입했다. 장석웅 전남 교육감은 "도민들과 약속했던 전남교육혁신을 위해 학생과 교실을 전남교육의 중심에 두고 조직을 개편했다"며 "이제 조직체계를 갖춘 만큼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실과 수업 혁신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국 51개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시행

교육부, 3월 새학기부터 ... 3년간 이수 학점 192학점

교육부가 3월 새학기부터 전국 51개 마이스터고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은 3년간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192학점이다. 기존 단위 제도에서는 204단위를 이수해야 하지만 단위 부담이 줄었다. 1학점 수업량도 17회에서 16회로 조정했다.

학생이 선택한 전문교과Ⅱ의 실무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성취수준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습을 보충하게 된다.

직업계고 학점제 지원센터로 지정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교육과정 중 학과 내 세부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가 10개교(28개 학과)가 증가했다. 타 학과 부전공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는 9개교(22개 학과)가 늘었다.

또 학과 내 선택과목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는 17개교(45개 학과)가, 학과 간 선택과목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는 15개

고교학점제

대학처럼 다양한 과목을 학생이 선택해 이수하고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2학년도에 특성화고, 일반고에 부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2025학년도에는 전체 고교가 도입하게 된다.

교(41개 학과)가 증가했다. 학기 중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이스터고는 21개교(59개 학과)가, 입학 전 진로설계 지도를 실시하는 마이스터고는 19개교(49개 학과)가 각각 늘어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특성화고, 일반고까지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25학년도에는 고등학교 전체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전남도교육청, 20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전남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고등학생 부교재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13만 2200원이 인상된 42만 2200원을 지원받는다. 초·중학생은 20만 6000원, 중학생은 29만 5000원이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지역 동(洞) 단위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도 종전 기

준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5%이하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포'에서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미라 전남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전원 합격

조선대학교 작업치료학과가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서 4년 연속 응시자 전원 합격의 기록을 세웠다.

2일 조선대(총장 민영돈)에 따르면 한국보건직업능력개발원(이하 보건직업능력개발원)이 시행한 '제47회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서 조선대학교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작업치료학과 4학년 응시자 전원이 합격했다.

특히 이번 작업치료사 시험에 합격한 학

생 가운데 8명은 보건교육사(3급) 국가자격시험에도 동시에 합격해 눈길을 끌었다.

조선대 작업치료학과는 전국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작업치료사국가면허증 외에도 전공과 관련된 보조공학사국가자격증, 보건교육사국가자격증, 감각발달재활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평생교육 강화 '온라인 강의' 활성화

동강대학교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역 문화산업과 예술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생활 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

동강대(총장 이민숙) 평생교육처는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올해 1학기 교육과정을 2주 연기된 16일부터 시작한다.

동강대는 사이버 자격교육원을 운영하고,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과정을 학교폭력상담사·음악심리상담사·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스토리텔링 수화지도사 등 25개로 늘렸다.

특히 동강대는 광주의 문화산업과 지역 예술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민화와 채색화, 한국화, 문인화, 한글·한문서예 과정 등도 개설했다. 이밖에 신규과정으로 떡 제조기능사와 약용식물 자원관리사, 들꽃 생활자수, 나를 찾는 시간 힐링 글쓰기 등이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온라인 입학식'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는 '코로나19' 확산사태로 취소했던 신입생 입학식을 2일 오전 대학 공식 채널인 유튜브 '호남대TV'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온라인 입학식'으로 꾸며 신입생 1649명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호남대 제공>

광주교육대·광주과기원, 인재양성 상호협력 협정

광주교육대학교(총장 최도성)와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기선)은 최근 인재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양 기관이 과학기술계 및 교육계 인력양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교대와 광주과기원은 ▲학생 상호 교류 및 학점 인정 ▲교직원 상호 교류 및 업무 협력 수행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 교환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한다.

최도성 광주교대 총장은 "이번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양 기관이 지역인재 양성에 있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